

Parenting Attitude Test-2nd Edition

# PAT-2

부모용 연구개발 | 임호찬

## 부모양육태도검사 2판

검사자명	SAMPLE	검사기관	SAMPLE	검사일	2024/05/28
------	--------	------	--------	-----	------------

자녀 이름	SAMPLE	생년월일	2019/05/23
자녀 성별		소속/학년	

부모 이름	SAMPLE	양육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 양육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양육자
관계			



## 부모양육태도검사 2판(PAT-2) 소개

본 검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의 요인별 수준 및 특징과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지침을 결과보고서에 제시하여, 보다 바람직한 양육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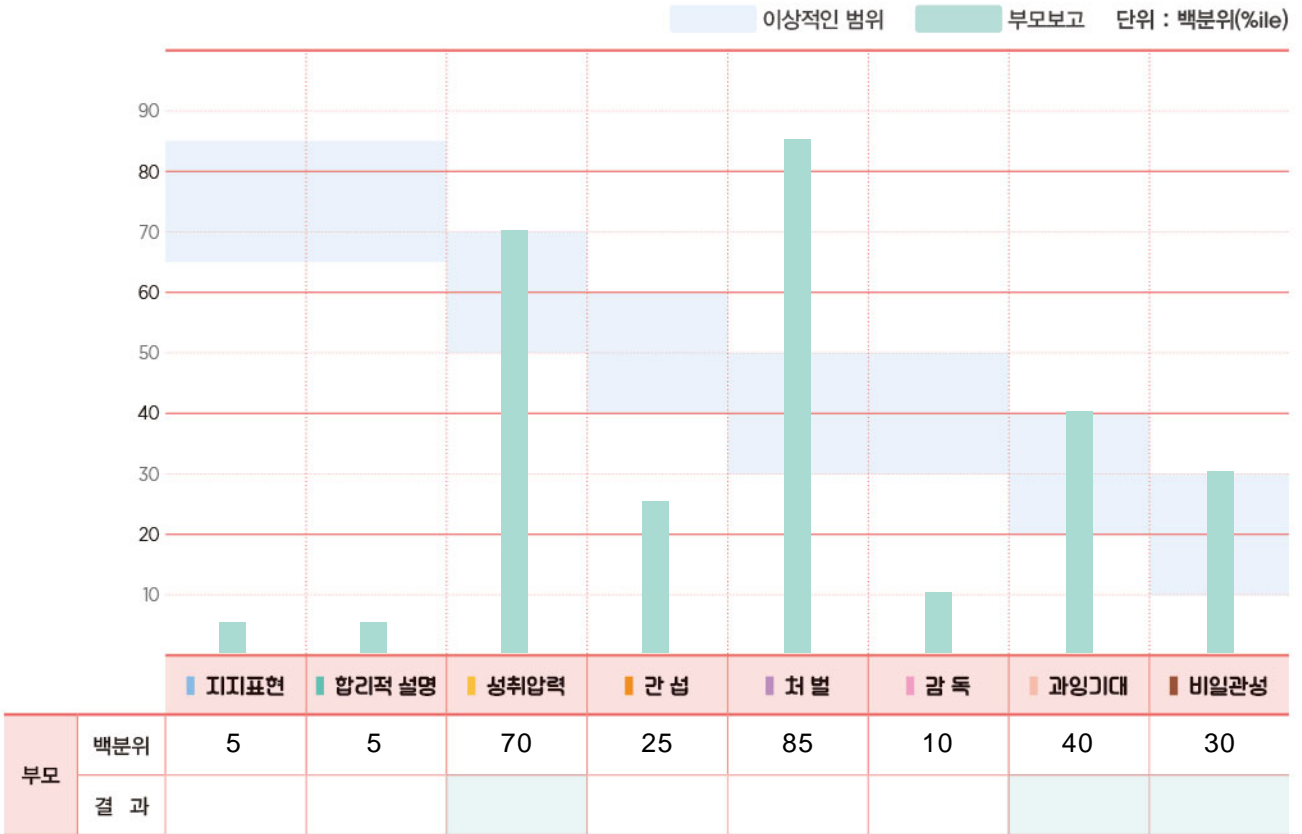
**부모양육태도검사 2판(PAT-2)**은 자녀용과 부모용으로 구성되어 부모님과 자녀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부모님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부모로서의 자아상(self-image)과 자녀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서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검사는 백분위(%ile)를 기준으로 결과를 제시합니다. 백분위는 일종의 순위점수로서, 표준집단의 크기를 100명으로 생각했을 때 해당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전체 중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냅니다. 양육태도의 수준은 요인별로 제시된 이상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10% 이상 높을 경우 '지나침'에 해당되며, 이상적인 범위보다 10% 이상 낮으면 '미흡함'에 해당됩니다. 양육태도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요인별 프로파일에서 양육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양육태도검사 2판(PAT-2) 요인 설명

요인	요인 설명
 <b>이치표현</b>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많이 보이는 정도
 <b>합리적 설명</b>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꾸중할 때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노력의 정도
 <b>성취압력</b>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 성공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도
 <b>간섭</b>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도
 <b>처벌</b>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정도
 <b>감독</b>	부모가 자녀의 일상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
 <b>과잉기대</b>	부모가 자녀에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암묵적인 기대 정도
 <b>비일관성</b>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꾸지람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정도

**종합 프로파일**



요인	이상적인 범위	이상적인 자녀행동	이상적인 자녀행동 설명
이리표현	65~85%	자기 신뢰적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
합리적 설명	65~85%	자기 통제적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을 적게 느끼고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
성취압력	50~70%	스트레스에 잘 대처함	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대처함
간섭	40~60%	적당한 활동수준	깊이 있는 사고습관을 가지며, 난이도 높은 문제도 쉽게 포기하지 않음
처벌	30~50%	새로운 상황에 호기심을 보임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규범을 내면화 시켜 바람직한 행동 습관을 보임
감독	30~50%	목적적인 행동	행동 규범을 잘 습득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져 자율성이 발달된 모습을 보임
과잉기대	20~40%	성취지향적	자존감이 높으며, 지적능력이나 행동규범이 우수하게 발달됨
비일관성	10~30%	또래와 잘 어울림	부정적인 경험에도 잘 대응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요인별 프로파일**

**지니표현**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낮을 경우에는 애정 표현을 자제하거나 적게 하는 편입니다. 본 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지나칠 경우(상위 5% 이내)**에는 오히려 자녀의 지나친 울음이나 고집에도 자주 굴복하여 자녀가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흡할 때**

자녀에게 애정 어린 감정전달을 조금 적게 하시는 편입니다. 40% 이하인 분들은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기대수준이 높거나, 원래 양육자의 성향이 사려 깊고 과묵한 마음을 가진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감정 수준에 따라서 애정 표현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주 애정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칠 때**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칭찬 또는 격려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실망을 많이 느끼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쉽게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조금 줄이고 자녀의 행동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느긋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 설명**

이 영역이 높을 경우에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하위 10% 이하)** 부모가 설정한 규율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는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힘 있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미흡할 때**

자녀에게 언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시는 편입니다. 특히 40% 이하로 내려간 부모님께서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척도점수가 너무 낮으면 부모님의 성향이 과묵하시거나 자신이 양육받아 온 과거 경험을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의 아버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바쁜 직업 활동으로 힘들시겠지만, 자녀에게 일정시간 대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하신다면, 자녀의 사회적 대화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달되어 자신감이 자라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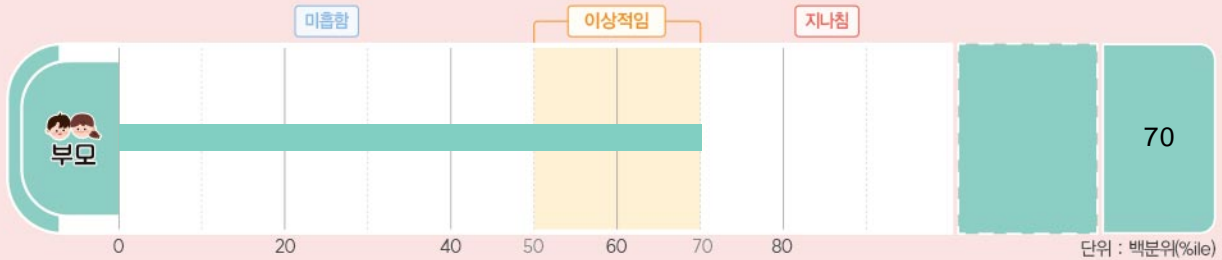
**지나칠 때**

자녀와 평등한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를 많이 시도하는 유형입니다. 바람직한 태도이기는 하나 자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지나치기 때문에 부모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양육 경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 긴장을 가지기 쉬운 아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 번의 설명 이후에도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호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성취압력**

약간의 성취압력은 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능이 높은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압력에 대체로 별 문제 없이 적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지능력이 부모의 성취압력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쉽게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미흡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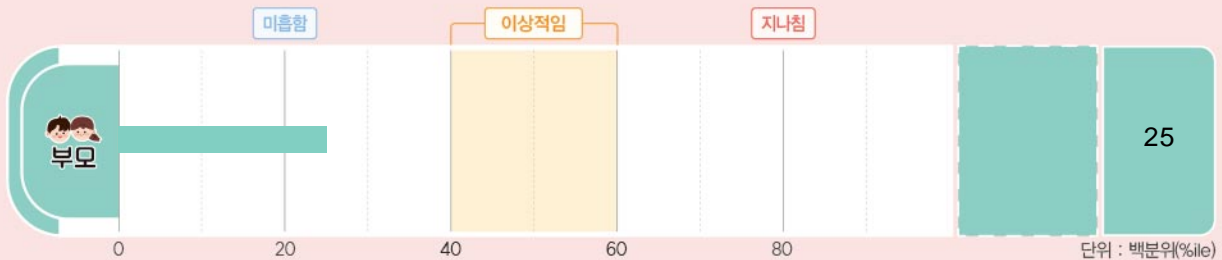
자녀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적절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는 성향으로 보입니다. 보통 아버지의 경우 이러한 점수를 가지기 쉽습니다. 아버지의 점수와 어머니의 점수 차이가 너무 클 경우, 과제를 완성시키는 집중력이 낮아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아동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쏟아 붓는 노력을 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어머니의 수준과 적절하게 맞추시는 노력을 먼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적인 점수까지 올리는 과정 동안 자녀의 수행력(예, 피아노를 열심히 치거나, 장난감을 열심히 조립하거나, 친구들과 열심히 놀 때)이 발전될 경우에는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을 함께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자녀를 자주 돌보아주시기 힘든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가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자녀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칠 때**

자녀가 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성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녀의 지능수준이 상위 20% 정도에 속하지 못할 경우 자녀들은 매우 힘들어 할 것입니다. 자칫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쏟지 않고 그냥 '하는 척만 하는 아동'으로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압력이 없는 세상살이는 없지만 자녀가 감당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압력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서는 너무 많은 과외공부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양육 방식을 고수하실 경우, 자녀는 상식만 많이 갖추고 진정 중요한 사고력이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관섭**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직된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에는 어느 정도 인 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초동시절 이후까지 지속되면 깊이 있는 사고습관을 가지기 어려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쉽게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흡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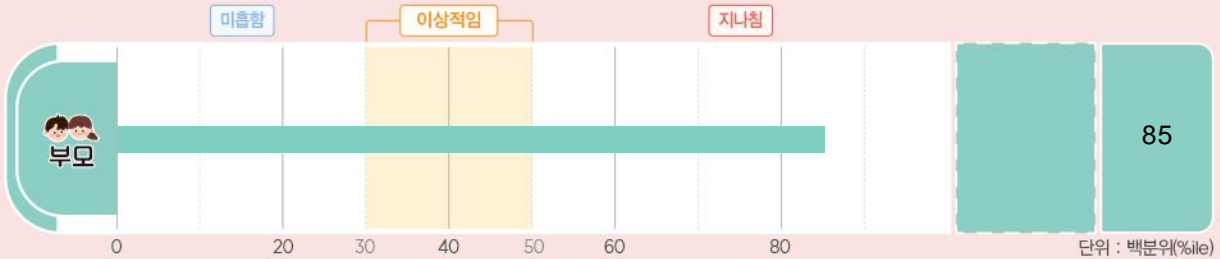
자녀에게 자율성을 많이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높은 아동인 경우에는 비교적 바람직하지만, 과제 수행에 열의가 없을 경우에는 아동이 즉흥적이고 즐거운 것만 추구하려는 성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후에도 진전이 너무 없을 때는 조금씩 개입을 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칠 때**

관섭은 감독과 함께 어린 유아시기에는 절제된 행동발달이나 과제집중력을 증가시키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관섭입니다.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관섭의 효과는 부정적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충동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건성으로 대답하는 성향으로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뭔가를 할 때에 조금 더 느긋하게 지켜보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권유합니다.

**처벌**

상위 10%에 속하는 부모들은 자녀도 공격성을 배우거나 목적 없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을 가할 때에는 일관성을 잘 유지하고, 나아가 자녀가 처벌의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한 후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흡할 때**

자녀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유아시절에 적절한 훈육을 위해서는 적당한 압력이나 행동적 제재도 필요합니다. 행동규범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자녀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깨닫게 되고, 또 반복된 노력으로 부모의 규범을 내면화시켜 자기 것이 될 때 바람직한 행동습관으로 형성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자상한 어머니와 엄한 아버지의 조합이야말로 이상적인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칠 때**

한국의 부모들은 처벌에 대하여 너그러운 편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서 처벌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체적 처벌은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리적으로 잘못을 느낄 수 있는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느낀 점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 모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물리적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독**

자율성은 자녀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감독의 정도가 적당하면 행동규범을 잘 습득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 증가에 따라 **자율성의 폭을 점차 넓려야** 자녀가 바람직한 사회성을 습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위 10%에 속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흡할 때**

자녀를 많이 믿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유형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낮아지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경우에는 지루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 성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적절한 감독은 좋은 습관을 갖추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칠 때**

자녀의 일상 스케줄을 매우 잘 알고 있는 편이지만, 너무 많이 감독하시면 오히려 거짓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은 자발성에서 생겨납니다. 이러한 양육 방식은 자녀가 어릴 때에는 성적이 올라가지만 초등 고학년 이후에는 시키는 것만 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발성과 탐구력, 사고력, 어려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은 동일한 심리적 차원으로 발달해 나갑니다. 조금 더 허용적으로 반응하시고, 확인하려는 행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과잉기대**

**암묵적 기대란,** 부모의 기대수준에 자녀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느끼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주 어릴 때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발달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의 암묵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미흡할 때**

자녀의 모든 면을 인정해주시려는 양육태도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긴장이 이완되는 양육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환경조성을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적 자극을 어느 정도 풍요롭게 해 주는 것은 정서발달과 지능발달에 필수 요소입니다.

**지나칠 때**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 속으로 항상 내 자녀가 다른 집 자녀보다 부족하다는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아무리 조심하신다고 해도 어머니나 아버지의 눈빛, 음성 톤, 행동 등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의 내면은 점점 나약하게 되는 셈이지요. 자녀의 장단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의 발달곡선은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수평적 비교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아동을 보내면서 주어진 학습 과제에 대한 사고능력만 적절하게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 지적능력이나 행동규범이 우수하게 발달하는 아동도 많으니까요.

**비일관성**

부모의 양육 방식 중에 **가장 부적절한 태도**로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점수가 80점 이상인** 부모님들은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인은 부모의 성격적인 불안정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불만, 가족에 대한 불만,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힘 없는 자녀에게로 분출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일관되지 않은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지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흡할 때**

매우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지만, 가정 내에서 부모의 경험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면 바깥세상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조금은 부모님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나쁜 감정을 느낀 이유를 설명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나칠 때**

양육태도 중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점수가 높은 부모들은 상당 부분이 자신의 어린시절 경험과 현재 상황에서의 불만족을 자녀에게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일관성 있는 부모를 만나길 원하고, 아동도 나이가 들수록 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에 대해 나름대로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할 양육태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상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은 공부영역과 사회적 상호작용영역에 따라 다른 기준점을 가질 수 있으나 각 영역마다 시종일관 동일한 판단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4개의 커피잔인데 지난 주에 깨트렸을 때와 오늘 깨트릴 때의 반응이 다르다면 아이들은 무척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모님들은 훈육을 할 때 그때그때 하시고, 모아서 한꺼번에 꾸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